



안전의 '습관화'가 재해예방 비법

R&P코리아 조경민 과장

취재 김성대 기자 glshu002@safety.or.kr

R&P코리아는 지난 1983년 글로벌 제약그룹인 미국의 알피쉐러사(R.P.Scherer Cooperation)와 대웅제약(주)이 합자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연질캡슐 전문 위·수탁 회사다.

세계 제약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 알피쉐러의 오리지널 기술력이 뒷받침되다보니 이곳 제품의 품질은 그 우수성이 남다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제약사들은 물론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도 이곳과 거래를 하고 있다.

허나 이곳은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건강기능 식품 등을 생산하는 헬스케어토탈 기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같은 R&P코리아의 끊임없는 성장에는 우수한 안전관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틈없는 공정 안전관리를 통해 최고의 생산성과 품질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곳 임직원들의 설명. 세심한 안전활동으로 R&P코리아의 성공신화를 이끌고 있는 조경민 과장을 만나봤다.

작은 위험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라

이곳은 제약회사의 특성상 여타 제조업에 비해 현장 내 위험요소들은 많지 않다. 또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기계·기구로 인한 재해의 위험성도 적은 편이다. 다만 중량물을 이용한 작업과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위험요소에 대비해 조경민 과장은 작업시작 전 각 조장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그는 보호장구의 지급 및 착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한편 호이스트 등의 중요 설비는 검사기간 내라도 정기보전을 행하도록 했다.



안전습관을 몸에 배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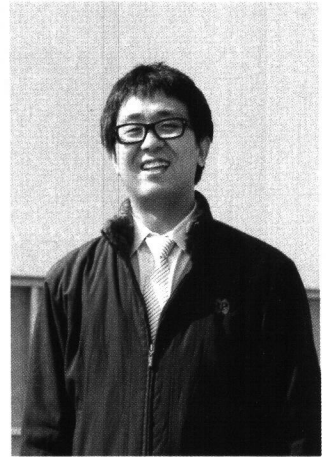
조 과장이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안전을 습관화 하라’는 것이다. 그는 사업장 내에 확고한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직원들의 습관에 안전이 스며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즉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산업안전법상의 규정된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상 유의사항, 안전의 중요성 등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의 열정은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더욱 빛을 낼 수 있었다. 대표이사 등 이곳의 경영진은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임원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들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조경민 과장은 “어떠한 행동 지침보다도 몸에 배인 안전 습관이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안전의 습관화를 위해서 안전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안전하고 좋은 설비라도 그 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기계가 된다”라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없는 노력이 안전전문가를 만든다

조 과장은 입사 당시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다.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던 그 인생에 2002년 큰 변화가 생겼다. 공무원에서 맡고 있던 안전업무가 생산관리부로 이관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안전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됐고, 처음으로 회사의 안전활동을 이끌게 됐다. 즉 이때부터 본격적인 안전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막연한 이론 지식만 갖고 있던 그에게 안전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안전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스스로 안전 관련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문지식을 쌓아갔다. 그 결과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안전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조 과장의 올해 목표는 ‘재해율 0%’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설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짜고 있다. 또 안전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ISO 9001의 획득도 추진 중에 있다.

동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경민 과장. 향후 그가 펼칠 안전관리가 제약업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기대가 된다. ☺